

“지역개발 사업추진 교두보 확보”

박윤국 시장, 2007년 도시발전 위한 기초다지는 한해 총선출마설 “시장직무 열심히 수행할 뿐” 답변 회피

포천시도시개발계획이 포함된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연말 승인함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올해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을 만나 2007년도 시장운영방향과 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포천시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청취했다.

(편집자주)



포천시는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포천시는 건교부 승인 150만평과 포천시 향후 추진계획 200만평, 경기도영흥신도시 유치 위한 부지 400만평 등 총 750만평을 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좌)포천시도시 이미지, (우)박윤국 포천시시장

▶2006년도 시장평가를 평가한다면
2006년 한해를 돌아보면 포천시는 많은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에서의 팀워크 중심의 업무추진, 목표지향의식 함양,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설정했다.

그동안 자동차로 지구둘레 열댓바퀴에 해당하는 30만km를 열정을 가지고 뛰면서 비교할 것은 비교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 최근 지방행정 방향이 지방자치단체간 대결구도로 바뀌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포천의 변화는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포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쯤 가고있나 생각하고 꼼꼼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07년도 시장운영방향은
2006년도와 잡자고 있던 도시를 깨우고 시장발전의 굳건한 반석을 다진했다면 2007년은 그려진 밑거름 위에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며 벽을 쌓는 중요한 시기다.

포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같은 법을 적용받더라도 공직자와 지도자에 따라 지역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천시 민선3기는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7년은 그동안 계획했던 대형 프로젝트 사업, 즉 민자고속도로 확포장공사, 즉 민자고속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포천신도시개발사업, 명품신도시 유치, 교육관련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같은 사업추진을 통해 포천시가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

아울러 살기 좋고 편리한 자족도시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원년으로

▶평생교육 공교육 등 취약부분 교육지원 강화 ▶최고의 관광도시 개발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첨단산업단지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FTA 등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영유아 여성 소외계층 등 복지정책 등 역점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추진방향은
포천시 지역은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 주택은 주택 혹은 공장은 공장 등으로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같은 내용으로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을 지난 12월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인구 2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특성과 기능에 걸맞는 장기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여 21세기 포천시의 도시미래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에는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교통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예정용지 39.28km(1천188만평)를 주거 및 상업, 공업용지 9.190km(278만평),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지 30.090km(910만평) 등을 손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용지는 주거형 2.330km(70만

평), 산업형 1.200km(36만평), 기타(관광휴양형, 유통형) 26.560km(804만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광역교통계획은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의정부-포천간 BRT 및 진접-포천간 BRT사업과 도시철도유치 사업 등이다.

▶포천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은
포천신도시 사업은 2015년까지 인구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50만평 규모로 추진된다.

신도시는 주거와 행정중심 기능을 유치하고 산업단지가 포함된 고품격 자족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150평 규모의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당초 포천시가 계획했던 350만평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400만평 신도시 사업을 포천에 유치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군내면과 가산면 일부 지역 등 750만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포천시가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포천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처럼 잠만자는 도시가 아니라 산업과 교



육, 행정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명품신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또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민간항공 등을 갖춘 경기북부거점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대형사업이 잠미 및 청사전에 불과하다는 말에 대해
포천시는 그동안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철도 유치, 지역항공유치, 대규모 관광단지개발,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같은 사업시행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미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수많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계획했던 일을 안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포천시는 재정이 30%대에 불과하는데 이같은 재원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포천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훗날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특별히 할말이 없다. 현재는 시장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뿐이다.

마음속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일이란 여지가 남아야 된다. 누구나 잘한 일, 그렇지 못한일, 공유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지나친 욕심은 내지 않았다.

모든일은 사리와 도리가 있고, 생리에 잘 맞아야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해년인 2007년은 600년만에 찾아온다는 황금해이다. 새해 포천시는 신도시개발을 비롯한 지역항공유치,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이다.

포천시는 더 이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회의 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 훗날 후손들에게 지금의 우리가 포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주역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⑱ 포천시 대학유치 발벗고 나서

서울대에 60만평 무상제공 파격조건 제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유치여부 지켜보아

포천시는 최근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비롯한 한세대, 건국대 등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대학과 협의중이거나 혹은 유치희망 의향을 전달했다.

포천시가 대학유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민선4기 박윤국 포천시장이 지난해 출범하면서 부터다. 박윤국 시장은 민선 4기 4대 시장방침 가운데 첫 번째로 공교육의 환경개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포천시가 대학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해 9월경으로 충남소재 한세대와 민간지역 항공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부터다.

이후 포천시는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건국대 제2캠퍼스, 적십자 간호대학 등 관계자와 물밑 접촉을 계속해 오고있다.

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포천시를 비롯해 파주시, 평택시, 시흥시, 강원도 홍천군 등 5개 시군이며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워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한세대 항공학과
대학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세대라고 할 수 있다. 포천시와 한세대는 지난해 11월8일 지역공공 및 항공관련학과 유치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또 12월8일 양해각서 후속조치로 지역공공 및 항공관련학과 유치사업을 위한 공동협력단을 구성하고 운영규정 제정함으로써 한세대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공동협력단은 군비행항 및 비항공역 사용 허가와 지역공공 및 항공 유치, 한세대학교 항공학부 실습시설 부지선정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또 포천지역 항공사 설립을 위해 항공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령과 규칙, 규정, 지침 등의 범위 안에서 양측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포천시의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출신 이모씨를 통해 서울대 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월11일 포천시는 학교부지 60만평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포천시는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면제, 진입로 등 기반시설 조성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박윤국 포천시장이 서울대 방문, 이장무 총장을 만나 1시간30여분 동안 임의조건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홍보용 CD를 활용해 150만평의 포천신도시가 건설되는 포천시 군내면 일대 부지 6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조건 등을 제안했다고 동석한 포천시 관계자가 전했다.

▶적십자 간호대학
적십자 간호대학은 2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학 김모인 학장 일행은 최근 포천시장을 방문, 캠퍼스의 포천이전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포천시 관계자가 밝혔다.

또 포천시 관계자는 “적십자 간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MOU체결을 하는 등 유치가 가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십자 간호대학이 포천으로 이전할 경우 포천시는 부지를 비롯한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면제, 진입로 등 기반시설 조성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국대 이사장 일행이 포천시를 방문해 제2캠퍼스 부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천시는 건국대 제2캠퍼스가 포천지역에 유치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반시설 지원 등 다른 대학유치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꽃배달 서비스

☛ 위치는 소홀음

이동교리281-14
부인타사거리에서
송우리쪽
130m
우측대로변
풍산그라비아역

☛ http://www.sunghaflower.co.kr

011-758-9088

성라플라워

전국.해외꽃배달서비스 080-543-1889

011-758-9088

자향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wellbeingcha.com

011-9750-1883

☛ **운남보이차** 진품
천연무공해식품
무량산다예종
원산지 진품 도소매

“자향타호회” 회원우대
연중무휴시음및
다도시연회

☛ http://www.wellbeingcha.com

운남보이차